

국내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의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 인식 및 경험에 관한 연구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Open Access Journal Publishing among Early-Career Researchers in South Korea's Health and Medical Field

한 혜 영 (Hye Young Han)*

심 원 식 (Wonsik Shim)**

목 차

- | | |
|---------|----------|
| 1. 서 론 | 4. 분석 결과 |
| 2. 선행연구 | 5. 결 론 |
| 3. 연구방법 | |

초 록

보건의료분야는 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학술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오픈액세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생태계의 변화를 선도할 집단으로 주목받는 신진연구자의 학술커뮤니케이션 양상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 인식과 경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59명의 유효 응답을 확보하였으며,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82.2%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투고경험이 있었고, 오픈액세스 출판이 연구성과의 확산과 인용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출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꼈으며, 학술지의 신뢰성은 낮게 평가하였다. 교수 집단은 빠른 심사과 출판에 기대가 높았으며, 보건학 연구자들은 사회적 영향력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전반적으로 신진연구자들은 오픈액세스 출판경험에 만족하였고, 출판의향에도 긍정적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의 오픈액세스 출판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학술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healthcare field actively utilizes open access as a means of scholarly communication to realize the social value of research. However, research on the scholarly communication patterns of early-career researchers who are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group poised to lead changes in the academic ecosystem remains extremely limited, particularly in South Korea.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publishing in open access journals among early-career researchers in South Korea's healthcare fiel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21 to August 26, 2025, securing a total of 259 valid responses, which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A total of 82.2% of respondents had experience submitting to open access journals, and they perceived open access publishing as helpful for disseminating research outcomes and increasing citations. Conversely, they felt burdened by publication costs and rated the journals as having low credibility. Professors had high expectations for fast review and publication, while health sciences researchers perceived greater social impact. Overall, early-career researchers were satisfied with their open access publishing experience and expressed positive intentions to publish again. This is the first study in South Korea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early-career researchers in the health sciences and medicine regarding open access publishing and provides baseline data for future scholarly communication research.

키워드: 보건의료분야, 오픈액세스 출판, 신진연구자, 탐색적 연구, 학술커뮤니케이션

Health Science and Medicine, Open Access Publishing, Early-Career Researchers, Exploratory Study, Scholarly Communication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의학도서관 사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hbean1208@gmail.com / ISNI 0000 0005 2892 4149)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wonsikshim@skku.edu / ISNI 0000 0004 6480 0867)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5년 10월 20일 최초심사일자: 2025년 10월 31일 게재확정일자: 2025년 11월 1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4): 55-74, 2025. <http://dx.doi.org/10.4275/KSLIS.2025.59.4.055>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오픈엑세스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연구의 투명성과 협력을 증진시킨다(Borgman, 2010; Suber, 2012). 나아가 학술 생태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별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하며,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다. 오픈엑세스는 BOAI(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를 시작으로 한 일련의 국제적 이니셔티브가 정책적 단계로 발전하며 구체화되었다(BOAI, 2002). 미국의 경우 오픈엑세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의 연구비 지원 논문은 2025년 7월 1일부터 출판 즉시 PubMed Central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NIH, 2025b).

지속적인 오픈엑세스 운동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토대로 연구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의 인식과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들은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천 의도에는 다면적인 태도를 보인다(Rowley et al., 2017; Severin et al., 2020; Xia, 2010). 오픈엑세스 출판을 통해 얻는 이점 외에도 학술적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 학술지의 명성과 품질, 높은 영향력, 동료심사의 엄정성이 긴밀히 맞물려 연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오픈엑세스 출판의 실천을 좌우하는 데에는 연구성과 평가체계와의 불일치, 출판 비용의 부담, 연구지원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 구조적이면서 복합적인 요인들도

작용한다(European Commission, 2020).

학술출판 관행의 변화는 모든 연구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집단은 신진연구자이다. 이들은 개방성과 공유, 투명성 같은 가치를 중시하고 기술 친화적이며 혁신적인 성향을 보여, 학술생태계에 변화를 촉진할 잠재력을 가진다(Nicholas et al., 2019). 반면에 학문적 성과를 통해 연구자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기존의 체계에 순응하기도 한다(Hemmings et al., 2013). 신진연구자들은 학문공동체 내에서 경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술논문 출판을 핵심적인 수단으로 삼는다. 그러나 전통적인 구독 기반 학술지는 접근성을 제한하고, 긴 출판 절차로 인해 연구성과 확산에 지연을 초래한다(Perianes-Rodríguez & Olmeda-Gómez, 2019). 마태 효과(Matthew effect)¹⁾로 인한 상대적으로 낮은 주목도는 신진연구자의 연구성과를 시의적절하게 평가받기 어렵게 한다(Merton, 1968). 기존 학술체계의 한계 속에서 신진연구자들은 오픈엑세스 출판을 새로운 전략으로 모색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신진연구자의 오픈엑세스에 관한 태도와 실천을 탐색하기에 중요한 학문영역이다. 보건의학적 연구성과는 사회적 공익성과 실용적 적용성을 가지며, 환자의 치료 및 공공보건 정책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특성을 지닌다(Ravinetto & Singh, 2023). 이 점에서 이 분야의 신진연구자들은 오픈엑세스의 개방성과 지식공유의 가치에 공감하며 출판의 과정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보인다(O'Hanlon et al., 2020; Toribio-Florez et al.,

1) 마태 효과(Matthew Effect)는 연구성과의 인정과 확산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져, 명망 있는 연구자는 영향력을 확장하고, 그렇지 않은 연구자는 소외되는 현상이다.

2020; Zečević et al., 2021). 또한 보건의료분야는 오픈엑세스 학술지로 논문을 출판할 기회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기준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에 색인된 보건의료분야 Gold OA 학술지는 4,821종으로 전체의 약 21.8%를 차지하였다(DOAJ, 2025).

이와 함께 국내 임상의학분야는 2023년 기준 12,806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최근 10년간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도 46.95회로 다학제분야(53.37회)에 이어 높은 수준이었다(변영호, 2025). 이는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들이 풍부한 출판 인프라와 높은 연구 생산성을 바탕으로 오픈엑세스에 관한 실질적 경험과 인식을 형성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들에게도 오픈엑세스 실천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과도한 논문 출판 비용(APC), 평가체계의 오픈엑세스 미반영, 명성 높은 저널 출판 압력 등은 연구경력 초기의 불안정성 속에서 가중되는 장애 요인으로 거론된다(Nicholas, Jamali, Herman, Xu et al., 2020).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다학제적 연구환경, 윤리·법적 규제, 높은 연구비의 필요성, 임상 업무와 연구의 병행, 첨단 기술에 따른 지속적인 학습 요구 등 고유의 제약이 더해진다(Chava et al., 2021; Li, 2024).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이들은 오픈엑세스를 통한 신속한 연구성과 확산이라는 학문분야의 요구와 안정적인 경력 구축이라는 개인적 필요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기도 한다. 특히 제도적 지원 체계가 미비할 경우 긴장은 심화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오픈엑세스

정책 기반은 여전히 과도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신진연구자들은 제도적 지원 없이 개인적인 선택과 판단에 의존하는 실정이다(Shmagun et al., 2024).

그럼에도 보건의료분야는 오픈엑세스가 가장 활성화된 영역이며, 신진연구자는 새로운 학술관행을 선도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험은 향후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경향을 다루거나, 경력단계를 구분하지 않아 신진연구자의 고유한 맥락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의 오픈엑세스 인식과 경험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의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신진연구자들이 오픈엑세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출판 경험은 어떠한지, 그리고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신진연구자의 정의와 경력단계

신진연구자는 학문적 경력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연구자를 지칭하며, '초기 경력 연구자(early career researcher, ECR)'라는 용어는 학문 분야에서 새롭게 진입하여 전문적 연구경력을 형성해 나가는 연구자를 포괄한다(Bazeley, 2003). 신진연구자의 범위는 학위 취득 시기,

직위, 연령 등의 기준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박사후연구원 및 조교수 등 초기 단계의 교원이 해당된다. 그리고 박사과정생은 학위과정에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학문공동체에 참여하므로 초기 경력 연구자로 간주되기도 한다(Meuleners et al., 2023; Monereo & Liesa, 2022).

국내 주요 연구기관은 박사학위 취득 시기와 일정 직위 및 연령 범위 등을 기준으로 신진연구자를 규정한다. 한국연구재단(NRF)의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 중 ‘우수신진연구사업’은 대상자를 최초로 조교수로 임용된 지 5년 이내 또는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 또는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NRF, 202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선도연구지원프로그램’에서 신청 자격을 조교수나 연구교수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39세 이하로 하고 있다(KBSI, 2025).

국의 연구기관들은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학위 취득 시점이나 연구경력을 기준으로 삼는다. 일본의 학술진흥회(JSPS)는 ‘젊은 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박사과정 중 혹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연구자를 신진연구자로 규정하고 있다(JSPS, 2025).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신진연구자를 ‘Early Stage Investigator’로 규정하며, 첫 번째 독립연구비를 신청한 시점에 최종 연구 학위를 취득했거나 임상 교육훈련을 수료한 지 10년 이내인 연구자로 한정한다(NIH, 2025a).

국내외 연구기관의 기준을 종합해 보면, 신진연구자의 연구경력은 일반적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5-10년 이내로 정의된다. 연령 기준은

대체로 40세 이하로 제한되는데, 이기종과 김기완(2005)은 이러한 연령 상한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자로서 10년의 경력을 쌓는 시기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전문교육 훈련 종료 시점도 초기 경력의 조건으로 고려되는데, 의료인의 경우 별도의 임상수련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는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신진연구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근거가 된다.

신진연구자의 경력단계는 경력 발달에 관한 이론을 통해서도 조망할 수 있다(Feldman, 1987). 초기 경력자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조직에 적응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과업을 수행하는데, 안정적이고 선형적인 경력의 경로를 전제한다. 이 때문에 학술분야의 유동적 고용과 성과중심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Kerr, 2022). 실제로 신진연구자는 연구성과를 축적하며, 학문공동체의 인정을 얻어가며 점차 독립적인 연구자로 자리매김하는 비선형적 과정을 거친다.

2.2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의 오픈엑세스 인식과 경험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의 오픈엑세스 인식은 환자치료와 공공보건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며 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환경에서 형성된다. 이들은 오픈엑세스를 단순한 출판 모델이 아니라 더 나은 연구를 촉진하고 환자와 대중에게 기여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Zečević et al., 2021). NIH의 공공 접근 정책과 같은 제도적 기반은 임상 및 연구 펠로우들이 오픈엑세스를 “제2의 본성(second nature)”

으로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도록 한다(O'Hanlon et al., 2020). 공공자금으로 수행된 연구의 경우 오픈엑세스로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관행으로 자리 잡았지만, 강한 압박은 자발적인 동기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신진연구자들은 'publish or perish'라는 학술문화적 압력 속에서 오픈엑세스와 전통적인 출판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Aprile et al., 2021). 오픈엑세스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나 보상시스템이 부족한 점도 신진연구자들의 내적 동기를 저해하여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게 한다(Zečević et al., 2021).

인간 대상 연구 데이터가 지니는 민감성과 처리 절차에 관한 복잡성은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의 오픈엑세스 실천에 고유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Zečević(2021)의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IRB 규제 준수 및 연구 기밀 유지 등으로 인해 데이터 공유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Bhavnani et al.(2016)는 데이터의 이질성과 파편화, 가용성 처리의 한계, 프라이버시와 무결성 확보의 어려움, 기술적 이해 부족 등을 오픈엑세스의 저해요인이라고 하였다. Allen과 Mehler(2019)는 오픈엑세스가 연구의 투명성과 재현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지만, 임상연구의 사전등록과 보고의무가 출판 지연과 시간적 압박으로 이어져 신진연구자의 실행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학문분야를 막론하고 신진연구자들은 오픈엑세스 출판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실제 출판 과정에서는 공통된 장애를 경험한다. 글로벌 종단 연구에 따르면 신진연구자 1,600명 중 3분의 2가 오픈엑세스로 출판하였으며, 그중

25%는 자주 출판한 것으로 나타났다(Nicholas, Jamali, Herman, Watkinson et al., 2020). 그러나 이들은 선임 연구자들에 비해 출판 주권이 낮아 규범적 기대를 따르는 경향을 보이며(Nicholas et al., 2023), 오픈엑세스 저널의 낮은 영향력 지수(Journal Impact Factor, JIF)나 품질 문제로 인해 경력 발전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Allen & Mehler, 2019; Nicholas, Jamali, Herman, Xu et al., 2020). 일부는 부실의심 학술지와 오픈엑세스를 혼동하거나 약탈적 출판사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한다(Nicholas et al., 2021).

과도한 논문 처리 비용은 주요 장애 요인이며 특정 저널의 경우 1만 달러를 넘는다(Nicholas et al., 2024). 연구 자원이 제한적인 신진연구자들에게는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며, 공동저자와 분담하거나 때로는 출판을 포기하는 사례도 보고된다(Nicholas, Jamali, Herman, Xu et al., 2020). 보건의료분야 연구자들은 오픈엑세스 출판 비용에 대해 다른 분야에 비해 더 부담으로 인식하였다. 초기 경력의 보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92%가 자금 부족을 포함한 지원체계의 미비를 오픈사이언스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Zečević et al., 2021).

결과적으로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는 환자 중심 가치와 정책적 압력에 따라 오픈엑세스를 수용하지만, 실제로는 경력 발달 압박, 제도적 인정 부족, 재정적 제약 등 복합적인 제약에 직면한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신진연구자에 대해 독립된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는 반면, 국내 학술 환경에서는 이들의 오픈엑세스 출판 관행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외를 통틀어 학문분야 별 차이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국내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의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에 대한 인식과 경험은 더욱 심층적으로 탐색될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및 표집 절차

국내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및 국내외 연구기관의 기준을 참고하여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신진연구자는 박사과정생,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의 박사후연구원, 임상 교육훈련 종료 후 10년 이내의 연구자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표집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차는 비확률적 표집 방법으로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소속기관 내 종합병원, 의과대학 및 보건의료계열 대학에 근무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이메일 주소는 논문 및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해당 절차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²⁾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었다.

1차 조사 결과는 연구 대상 기준을 충족한 응답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추가 모집이 필요하였다. 이에 대상 범위를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대학, 의료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 확대하였다. 2차 조사를 위해 생의학 서지 DB인 PubMed(Medline)에 색인된 OA 논문(BMC, Frontiers, MDPI, PLOS 등) 중 2014년부터 2024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였다. 국내 연구자를 선별하기 위해 도메인 정보가 국내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이메일 주소에 대한 정제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3.2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Google 온라인 설문지(Google Forms)를 이용하였다. 설문 항목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설계하였으며, 오픈액세스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표 1〉 참조). 설문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임상의학자 5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확인하였다. 설문조사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382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여 194명이 응답하였다(응답률 8.1%). 이 중 연구 대상 기준을 충족한 111개의 응답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2차 조사는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5,620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여 220명이 응답하였으며(응답률 3.9%), 148개의 유효 응답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최종적으로 1·2차 조사를 통해 259개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 29.0을 활용하였다.

2)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 No. EMCS 2025-06-003

〈표 1〉 설문 구성 및 선행연구 근거

영역	문항	참고문헌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학문분야, 소속, 직위	심원식, 2021; Eger et al., 2015; Xu et al., 2020
연구생산성	최근 3년 논문 출판 실적	심원식, 2021
학술지 선택 요인	학술지 품질, 학술지 영향력 및 출판사 명성, 편집진 구성 및 전문성, 동료 추천, 출판 이력, 심사 속도 및 출판 프로세스, OA 여부, APC	심원식, 2021; Wakeling et al., 2019
OA 출판 특성 인식	연구결과 확산, APC 부담, 피인용 증가, OA 학술지 신뢰도, 출판 경로 이점	Xu et al., 2020
OA 출판 기대효과 인식	연구 가시성 및 접근성 향상, 피인용 증가, 연구성과 사회적 영향력, 빠른 심사 및 출판, 연구자 평판 제고, 협업·초청 기회 증가	Xu et al., 2020
OA 출판 경험 정도	OA 논문 투고 및 출판 경험, 최근 3년간 OA 논문 출판 실적, 저자 역할(1저자, 교신저자 등)	Eger et al., 2015; Xu et al., 2020
OA 출판 경험 만족도	투고 전반적 만족도, 심사 속도, APC, 편집·심사과정 투명성, 연구 가시성 향상, 피인용 증가, 플랫폼 안정성·신뢰성	Wakeling et al., 2019
향후 OA출판 의향	재 투고 의향	Eger et al., 2015

4. 분석 결과

4.1 응답자의 특성

연구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259명으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연구경력은 6-10년이 47.5%(12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박사과정생 또는 임상수련 중인 응답자는 20.1%(52명)였다. 이는 상당수의 응답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관련 연구분야의 교육훈련을 완료하여 독립 연구자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자 유형은 부교수에서 비전임 교수에 이르는 교수 집단이 153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박사과정 및 박사후연구원 88명(33.9%), 연구직 13명(5%)으로 구성되었다. 표본에 다양한 교수 직위가

포함된 것은 임상수련 등으로 초기 연구경력 진입 시기가 개인별로 상이한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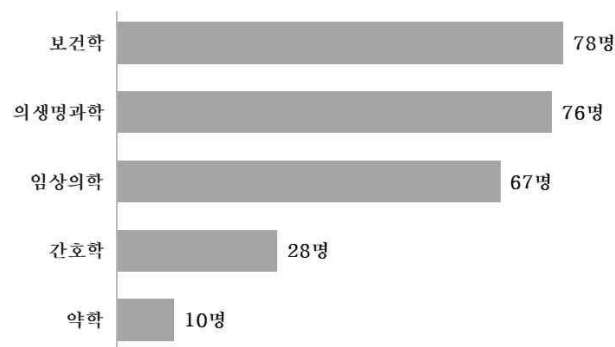
응답자의 연구 분야는 〈그림 1〉과 같이 보건의학, 의생명과학, 임상의학이 85.3%를 차지하여, 세 학문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분야의 분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제정한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2023’를 기준으로 하였다(KISTEP, 2023). 연구 생산성은 최근 3년간의 출판 실적으로 분석하였다(〈표 3〉 참조). 응답자의 절반은 소규모 출판 실적(1-5편)을 보였으나, 약 44%는 비교적 활발한 출판 실적(6편 이상)을 보였다.

4.2 투고 학술지 선택 기준의 중요도

투고 학술지 선택 시 고려하는 기준을 측정하

〈표 2〉 설문 응답자 특성

구분	특성	N	%
성별	남성	131	50.6
	여성	125	48.3
	무응답	3	1.2
연령	25-29	18	6.9
	30-34	41	15.8
	35-39	59	22.8
	40세 이상	141	54.4
연구경력	박사과정/임상수련 중	52	20.1
	5년 이하	84	32.4
	6-10년	123	47.5
연구자 유형	박사과정/임상수련 중	48	18.5
	박사후연구원	40	15.4
	부교수	38	14.7
	조교수	75	29
	임상교수	26	10
	비전임 교수	14	5.4
	연구직	13	5
	기타	5	1.9
합계		259	100



〈그림 1〉 응답자의 학문분야 별 현황

〈표 3〉 최근 3년간 학술논문 출판 실적

구분	N	%
0 편	14	5.4
1-5편	132	51.0
6-10편	62	23.9
10편 이상	51	19.7
합계	259	100

기 위해,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로 평가하였다. 학술지 선택 기준의 중요도 및 집단 간 차이는 <표 4>와 같다. 응답자들은 학술지 품질(M=4.21)과 학술지의 영향력 및 출판사의 명성(M=4.38)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여기에서 '학술지 품질'은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준과 연구의 학술적 기여도를 의미하며, '학술지 영향력 및 출판사의 명성'은 JIF와 피인용도 등 정량적 지표로 나타나는 외적 영향력과 위상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심사 과정의 투명성 및 속도, OA 여부, 출판 비용 등은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편집진의 전문성과 동료 추천은 앞선 항목들에 비해 낮은 평균값을 보여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구자의 유형에 따른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수 집단과 비교수 집단으로 구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술지 출판 이력에서는 비교수 집단이 교수 집단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t=3.314, p<.001$).

4.3 OA 학술지에 관한 인식 및 기대

4.3.1 OA 학술지 특성인식

OA 학술지 특성에 대한 인식은 <표 5>와 같다. 출판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M=4.29). 연구결과 확산과 피인용 증가 역시 평균 4점 이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들은 연구성과 확산과 영향력 증대를 기대하면서도 비용 부담은 뚜렷하게 체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OA 학술지 신뢰성은 비교적

<표 4> 학술지 선택 기준 중요도 및 집단별 차이

문항	N=259		비교수 N=106	교수 N=153	t	p
	M	SD	M			
학술지 품질	4.21	.75	4.28	4.16	1.272	.205
학술지 영향력 및 출판사 명성	4.38	.70	4.43	4.35	.987	.325
편집진 구성 및 전문성	3.29	.91	3.30	3.28	.181	.856
주변 동료 연구자 추천	3.35	.86	3.37	3.34	.258	.797
학술지 출판 이력	3.77	.82	3.96	3.63	3.314	.001***
심사 투명성·속도/OA 여부/APC	3.93	.83	3.84	3.99	-1.408	.160

*** $p<.001$

<표 5> OA학술지 특성 인식 수준

문항	N=259	
	M	SD
연구결과 확산 도움	4.07	.69
출판 비용(APC) 부담	4.29	.79
피인용 증가	4.10	.79
학술지 신뢰도 낮음	3.07	1.00
출판경로 이점	3.60	.95

낮았고, 출판 경로가 갖는 이점에 관한 인식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4.3.2 OA학술지 기대효과

OA 학술지 출판의 기대효과 인식 수준은 <표 6>과 같다. 응답자들은 OA 출판의 기대효과로 논문 접근성 향상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M=4.13), 빠른 심사 및 출판과 피인용 증가 역시 주요 기대 요인으로 나타났다. 논문 접근성이 높아지고 가시성이 향상되면, 결과적으로 피인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빠른 출판에 대한 기대는 OA의 신속한 출판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연구자의 평판 제고와 협업 및 초청 기회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식을 보였다. 이는 해당 효과들이 OA출판으로 기대되는 고유한 이점이기보다 다양한 학술활동으로 달성되며, 주된 동기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 간 인식 차이는 <표 7>과 같으며, 본 분

<표 6> OA학술지 출판 기대효과 인식 수준

문항	N=259	
	M	SD
연구 가시성 향상	3.80	.71
피인용 증가	3.92	.79
접근성 향상	4.13	.77
연구성과 사회적 영향력	3.59	.82
빠른 심사 및 출판	3.89	.98
연구자 평판 제고	3.29	.83
협업·초청 증가	3.21	.90

<표 7> OA 학술지 출판 기대효과 인식 수준 및 집단 간 차이

항목	연구자 유형 N=204				연구분야 N=177					
	비교수 N=77	교수 N=127	t	p	의생명과학 N=65	임상의학 N=58	보건학 N=54	F	p	η ²
	M				M					
	연구 가시성 향상	3.88	3.75	1.317	.189	3.71	3.76	3.87	.790	.455
피인용 증가	4.03	3.85	1.539	.125	3.82	3.81	4.04	1.509	.224	.017
접근성 향상	4.17	4.11	.524	.601	4.15	4.05	4.17	.381	.684	.004
연구성과와 사회적 영향력	3.64	3.57	.588	.557	3.51 ^a	3.41 ^a	3.80 ^b	3.407	.035*	.038
빠른 심사 및 출판	3.62	4.05	-3.06	.005**	3.75	4.02	3.80	1.218	.298	.014
연구자 평판 제고	3.25	3.32	-.633	.528	3.15 ^a	3.09 ^a	3.56 ^b	5.380	.005**	.058
협업·초청 증가	3.06	3.3	-1.804	.073	3.12	3.16	3.26	.340	.713	.004

* $p<.05$, ** $p<.01$

a, b는 Tukey 사후검정 결과이며, 다른 문자 간 유의한 차이 있음($p<.05$).

석은 오픈엑세스 학술지 게재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연구자 유형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교수와 비교수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빠른 심사 및 출판에서 교수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인식을 보였다($t(129.89) = -3.06$, $p < .01$). 교수 집단은 연구업적 평가 주기와 관련하여 출판 속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분야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의생명과학, 임상의학, 보건학 연구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 간호학과 약학 등 표본 규모가 작은 분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분야별 OA 학술지 출판의 기대효과는 연구성과 사회적 영향력($F(2, 174) = 3.407$, $p < .05$, $\eta^2 = .038$)과 연구자 평판 제고($F(2, 174) = 5.38$, $p < .01$, $\eta^2 = .058$)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Tukey의 사후 검정 결과, 연구성과 사회적 영향력의 인식은 보건학이 임상의학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35$), 연구자 평판 제고 인식도 보건학이 의생명과학($p = .023$) 및 임상의학($p = .00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보건학 분야는 공중보건 및 건강정보 확산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며, 정책 입안자, 실무자, 일반 대중과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연구 결과를 신속히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높

다. 이에 따라 OA 출판과 높은 친화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4.4 OA 학술지 투고 및 출판 경험

4.4.1 OA 투고 및 게재 현황

전체 응답자의 82.2%는 OA 투고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이 연구경력에 따라 다른 지 교차분석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 20.818$, $p < .001$).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박사학위 취득 전 또는 임상수료 이전 단계에서는 38.5%가 투고 경험이 없었으며, 연구경력 5년 이하 집단과 6-10년 집단에서는 각각 91.7%, 84.6%가 투고 경험이 있어 뚜렷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구분야별 OA 학술지 투고 경험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chi^2 = 10.25$, $p = .036$). <표 9>와 같이 의생명과학(90.8%)과 임상의학 집단(86.6%)은 대부분이 투고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간호학, 보건학, 약학 집단에서는 경험 비율이 7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간호학과 약학 연구자의 경우는 투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아, 연구분야에 따른 OA 학술지 활용 정도의 격차가 드러났다.

<표 8> 집단별 OA 투고 학술지 경험 비교

구분	없음 N(%)	있음 N(%)
박사학위/임상 미수료	20(38.5)	32(61.5)
5년 이하	7(8.3)	77(91.7)
6-10년	19(15.4)	104(84.6)
합계	46(17.8)	213(82.2)

$\chi^2 = 20.818$, $df = 2$, $p < .001$, Cramer's $V = .284$

〈표 9〉 연구분야별 OA 학술지 투고 경험 비교

연구분야	없음 N(%)	있음 N(%)
의생명과학	7(9.2)	69(90.8)
임상의학	9(13.4)	58(86.6)
간호학	8(28.6)	20(71.4)
보건학	19(24.4)	59(75.6)
약학	3(30.0)	7(70.0)
합계	46(17.8)	213(82.2)

$\chi^2=10.25$, $df=4$, $p<.05$, Cramer's $V=.199$

4.4.2 OA 학술지 출판 양상 및 만족도

본 연구 응답자 중 투고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95.8%(204명)는 실제 게재 경험이 있었다. 게재된 논문의 수는 2편 이상이 7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3편(37.7%)이 가장 많았고, 4-5편(23.5%), 1편(22.5%), 6편(16.2%) 순으로 나타났다. OA출판 논문의 저자 역할을 살펴보면,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가 82.8%에 달하였다. 1저자(53.4%)로 참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교신저자(29.4%), 공동 저자(17.2%) 순이었다. 응답자들의 OA 학술지 출판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63점($SD=.77$)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족'(50.0%)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보통'(35.3%), '매우 만족'(9.8%) 순이었다. '불만족'(3.4%)과 '매우 불만족'(1.5%)은 소수에 불과했다.

4.4.3 OA 학술지 투고 의향

OA 학술지에 투고할 의향은 게재 경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평균점수는 3.7점($SD=.84$)이었으며, 64.5%가 OA 학술지 출판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표 10〉 참조). '가능성 높음'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64.5%로 과반을 차지한 반면, 부정응답은 7.8%에 그쳤다.

OA 학술지 투고 의향에 연관된 인식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투고 경험이 있는 204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1〉 참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829$, $p<.001$ $R^2=.196$). 연구성과의 가시성 향상은 투고 의향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쳤다($\beta=.255$, $p=.011$).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논문의 피인용 증가는 통계적 유의성의 경계선상에 있

〈표 10〉 OA 학술지 투고 의향 수준

구분	N	%
전혀 가능성 없음	3	1.2
가능성 없음	17	6.6
보통	72	27.8
가능성 높음	130	50.2
매우 가능성 높음	37	14.3
합계	259	100

〈표 11〉 OA 학술지 투고 의향과 기대효과 인식의 연관성

문항	N=204		
	β	t	p
연구 가시성 향상	.255	2.571	.011*
피인용 증가	.214	1.896	.059
접근성 향상	-.111	-1.183	.238
연구성과 사회적 영향력	-.018	-.195	.845
빠른 심사 및 출판	-.053	-.781	.436
연구자 평판 제고	.129	1.423	.156
협업·초청 증가	.059	.704	.482

F=6.829, $p<.001$ $R^2=.196$, Adj. $R^2=.167$ * $p<.05$

〈표 12〉 OA 학술지 투고의향과 출판 경험의 연관성

문항	N=204		
	β	t	p
심사 속도	-.016	-.242	.809
출판 비용(APC) 부담	-.086	-1.331	.185
편집·심사 투명성	.042	.547	.585
연구 가시성 향상	-.001	-.011	.991
피인용 증가	.238	2.819	.005**
플랫폼 안정성·신뢰성	.315	3.99	<.001***

F=10.654 $p<.001$; $R^2=.245$, Adj. $R^2=.222$ ** $p<.01$, *** $p<.001$

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14$, $p=.059$).

OA 학술지 출판의 경험 요인이 투고 의향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0.654$, $p<.001$; $R^2=.245$), 플랫폼의 안정성과 인용 가능성이 유의한 정(+)방향의 영향을 미쳤다. OA 학술지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향후 OA 학술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결 론

오픈액세스는 디지털 시대의 학술커뮤니케

이션을 혁신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연구성과의 실용성이 중시되며, 사회적 파급력이 커서 오픈액세스가 보다 활발히 보급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진연구자가 학술생태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핵심 집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국내외적으로도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 259명을 대상으로 오픈액세스 출판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들은 학술지 선택에서 품질과 영향력 및 출판사의 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 환경에 해당하는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속도, 오픈엑세스 여부, 출판 비용 등의 요인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성공적인 학술출판은 신진연구자의 위상 확립과 경력 발전으로 직결되는 현실을 반영한다(Nicholas, Jamali, Herman, Watkinson et al., 2020). 연구자의 유형으로 보면 비교수 집단이 학술지의 출판 이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초기의 연구자들은 연구업적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으므로 학술지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오픈엑세스 학술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특성을 보였다. 연구성과의 확산과 인용의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출판 비용의 부담을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들은 오픈엑세스를 통해 연구성과를 널리 알리고 공유할 수 있다는 이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출판 비용을 주된 제약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O'Hanlon et al.(2020) 연구에서 확인된 임상의학분야 신진연구자 오픈엑세스 출판 태도와 유사하며, 고비용의 임상 연구 환경과 제한된 연구 자원으로 인한 연구자금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술지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오픈엑세스 학술지를 잠재적 부실 의심 학술지와 연관 짓는 경향을 보여 신뢰성 부분에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냈다(Nicholas et al., 2021).

셋째,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논문 접근성 향상과 피인용 증가, 연구 가시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

타났다. 오픈엑세스의 핵심 가치인 지식의 공유와 연구 영향력 증대를 추구하는 연구자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유형별 비교에서는 교수 집단이 빠른 심사 및 출판에 대한 기대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제도적 평가 체계 내의 연구 업적 압박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연구분야별로는 보건학 연구자들이 연구성과의 사회적 영향력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해당 분야의 연구가 공중보건 정책이나 지역사회 내 건강 실무에 직접 활용되기 쉬운 학문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pedding(2016)은 보건학 연구자들이 오픈엑세스를 환자와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연구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보건학 신진연구자들은 학문적 위상과 평판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픈엑세스 출판의 가치를 다른 집단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체 응답자의 82.2%는 오픈엑세스 학술지 투고 경험이 있었고, 그중 게재 경험은 95.8%에 달하였다. 심원식(2021) 연구는 이미 오픈엑세스 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경력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투고 경험이 없는 신진연구자를 포함하였음에도 오픈엑세스 학술지 활용 경험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게재된 논문에서 저자가 기여한 역할을 살펴보면, 1저자와 교신저자가 전체의 82.8%를 차지하여 높은 주 저자 비율을 보였다. 이는 신진연구자가 자신의 주요 연구성과를 오픈엑세스 학술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양상은 연구경력별 분석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박사학위 취득 또는 임상수련 종료 이후 오픈엑세

스 학술지의 투고경험이 급증하였으며, 본격적인 연구경력 초기부터 게재 경험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패턴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의생명과학과 임상의학이 다른 학문분야보다 높은 투고율을 보였으며, 해당 분야에서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활발히 운영되며 주요 학술 출판 채널로 기능하는 점과 관련이 있다(Sheikh et al., 2022).

다섯째,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오픈액세스로 논문을 출판한 응답자의 3명 중 2명은 만족 이상으로 평가하였고, 향후 투고 의향도 높게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구성과의 가시성 향상과 논문의 피인용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투고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 과정의 경험으로는 플랫폼의 안정성과 인용 가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가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출판 환경의 안정성을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논문의 인용에 대한 기대감은 오픈액세스 학술지 투고의향의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실제 출판의 경험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의 오픈액세스 출판 인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탐

색한 최초의 연구로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기존의 연구들이 오픈액세스의 제도적 변화나 출판구조를 논의해 왔다면, 본 연구는 연구자의 경력단계와 학문적 맥락에 따라 오픈액세스를 실천적 선택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들은 오픈액세스를 단순한 출판방식이 아니라 연구성과의 확산과 학문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신진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오픈액세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오픈액세스 출판지원 정책이 현실적 기제로 작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도서관과 같은 연구지원 조직이 OA 전환 계약에 따른 출판 비용 지원, 출판 윤리 교육,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이들이 OA 출판을 친숙하게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연구자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오픈액세스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표본 크기와 범위의 제약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다양화와 심층적 요인 분석을 통해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신진연구자의 인식과 경험은 향후 중견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픈액세스 문화의 확산과 학술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갈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변영호 (2025). 2023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출처: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6010000&bid=0031&act=view&list_no=94238

- 심원식 (2021). 오픈엑세스 메가 학술지 논문 게재 경험이 있는 국내 기관 소속 저자의 오픈엑세스 출판 인식 및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4), 45-65.
<https://doi.org/10.4275/KSLIS.2021.55.4.045>
- 이기중, 김기완 (2005). 신진연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실태분석 (연구보고 2005-1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2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년 개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2025). 선도연구 지원 프로그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출처: <https://www.kbsi.re.kr/board/view?menuId=MENU002050100000000&boardId=BOARD00036&schType=0&schText=%EC%84%A0%EB%8F%84%EC%97%B0%EA%B5%AC&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pageNum=1&rowCnt=10&no1=1&titleId=5q7SRS5ZYZ>
- 한국연구재단(NRF) (2025).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 우수신진연구. 한국연구재단.
출처: <https://www.nrf.re.kr/page/378?menuNo=378&searchSplitBizNo=42>
- Allen, C. & Mehler, D. M. A. (2019). Open science challenges, benefits and tips in early career and beyond. *PLoS Biology*, 17(5), e3000246. <https://doi.org/10.1371/journal.pbio.3000246>
- Aprile, K. T., Ellem, P., & Lole, L. (2021). Publish, perish, or pursue? Early career academics' perspectives on demands for research productivity in regional universities.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40(6), 1131-1145.
<https://doi.org/10.1080/07294360.2020.1804334>
- Bazeley, P. (2003). Defining 'early career' in research. *Higher Education*, 45(3), 257-279.
<https://doi.org/10.1023/A:1022698529612>
- Bhavnani, S. P., Munoz, D., & Bagai, A. (2016). Data science in healthcare: implications for early career investigators. *Circulation: Cardiovascular Quality and Outcomes*, 9(6), 683-687.
<https://doi.org/10.1161/CIRCOUTCOMES.116.003081>
- BOAI (2002).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BOAI Organization. Available:
<https://www.budapestopenaccessinitiative.org/read/>
- Borgman, C. L. (2010). *Scholarship in the Digital Age: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the Internet*. Cambridge, Mass.: MIT Press.
- Chava, K., Chakilam, C., Suura, S. R., & Recharla, M. (2021). Advancing healthcare innovation in 2021: integrating AI, digital health technologies, and precision medicine for improved patient outcomes. *Global Journal of Medical Case Reports*, 1(1), 29-41.
<https://doi.org/10.31586/gimcr.2021.1294>

- DOAJ (2025).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 Available: <https://doaj.org/>
- Eger, T., Scheufen, M., & Meierrieks, D. (2015). The determinants of open access publishing: survey evidence from Germany. *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9(3), 475-503. <https://doi.org/10.1007/s10657-015-9488-x>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20). Progress on Open Science: Towards a Shared Research Knowledge System: Final Report of the Open Science Policy Platform.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Feldman, D. C. (1988). *Managing Careers in Organizations*. Glenview, Ill.: Scott Foresman.
- Hemmings, B., Hill, D., & Sharp, J. G. (2013). Critical interactions shaping early academic career development in tw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ssues in Educational Research*, 23(1), 35-51.
- JSPS (2025). Research fellowships for young scientists.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Available: <https://www.jsps.go.jp/english/e-pd>
- Kerr, P. (2022). Academic pipeline or academic treadmill? Postdoctoral fellowships and the circular logic of “development”. *South Afric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36(3), 72-90. <https://doi.org/10.20853/36-3-5080>
- Li, A. W. (2024). Crossing between clinical work and scholarly publishing: early-career neurosurgeons as clinician-researchers. *Journal of Scholarly Publishing*, 55(3), 356-384. <https://doi.org/10.3138/jsp-2023-0086>
- Merton, R. K. (1968). The Matthew effect in science: the reward and communication systems of science are considered. *Science*, 159(3810), 56-63. <https://doi.org/10.1126/science.159.3810.56>
- Meuleners, J. S., Neuhaus, B. J., & Eberle, J. (2023). The role of scholarly identity and basic needs support during doctoral studies on career aspirations of early career scientist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8(12), 1952-1965. <https://doi.org/10.1080/03075079.2023.2217726>
- Monereo, C. & Liesa, E. (2022). Early career researchers' identity positions based on research experiences.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41(1), 193-210. <https://doi.org/10.1080/07294360.2020.1835834>
- Nicholas, D., Herman, E., Boukacem-Zeghmouri, C., Rodríguez-Bravo, B., Watkinson, A., Abrizah, A., Świgoń, M., Xu, J., Sims, D., Serbina, G., Clark, D., Jamali, H. R., Tenopir, C., & Allard, S. (2023). Transforming scholarly communications: the part played by the pandemic and the contribution of early career researchers. *Learned Publishing*, 36(4), 492-505. <https://doi.org/https://doi.org/10.1002/leap.1576>

- Nicholas, D., Herman, E., Watkinson, A., Xu, J., Abrizah, A., Rodríguez-Bravo, B., Boukacem-Zeghmouri, C., Polezhaeva, T., & Świgoń, M. (2021). Early career researchers between predatory publishing and academic excellence: the views and behaviours of the millennials. *Foresight and STI Governance*, 15, 56-65. <https://doi.org/10.17323/2500-2597.2021.1.56.65>
- Nicholas, D., Jamali, H. R., Herman, E., Watkinson, A., Abrizah, A., Rodríguez-Bravo, B., Boukacem-Zeghmouri, C., Xu, J., Świgoń, M., & Polezhaeva, T. (2020). A global questionnaire survey of the scholarly communication attitudes and behaviours of early career researchers. *Learned Publishing*, 33(3), 198-211. <https://doi.org/https://doi.org/10.1002/leap.1286>
- Nicholas, D., Jamali, H. R., Herman, E., Xu, J., Boukacem-Zeghmouri, C., Watkinson, A., Rodríguez-Bravo, B., Abrizah, A., Świgoń, M., & Polezhaeva, T. (2020). How is open access publishing going down with early career researchers? An international, multi-disciplinary study. *El profesional de la información*, 29(6), e290614. <https://doi.org/10.3145/epi.2020.nov.14>
- Nicholas, D., Revez, J., Abrizah, A., Rodríguez-Bravo, B., Boukacem-Zeghmouri, C., Clark, D., Xu, J., Świgoń, M., Watkinson, A., & Jamali, H. R. (2024). Purchase and publish: early career researchers and open access publishing costs. *Learned Publishing*, 37(4), e1617. <https://doi.org/10.1002/leap.1617>
- Nicholas, D., Watkinson, A., Boukacem-Zeghmouri, C., Rodríguez-Bravo, B., Xu, J., Abrizah, A., Świgoń, M., Clark, D., & Herman, E. (2019). So, are early career researchers the harbingers of change? *Learned Publishing*, 32(3), 237-247. <https://doi.org/10.1002/leap.1232>
- NIH (2025a). Early Stage Investigator (ESI) Policie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vailable: <https://grants.nih.gov/policy-and-compliance/policy-topics/early-stage-investigators>
- NIH (2025b). NIH Public Access Policy Overview.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vailable: <https://grants.nih.gov/policy-and-compliance/policy-topics/public-access/nih-public-access-policy-overview>
- O'Hanlon, R., McSweeney, J., & Stabler, S. (2020). Publishing habits and perceptions of open access publishing and public access amongst clinical and research fellows.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108(1), 47-58. <https://doi.org/10.5195/jmla.2020.751>
- Perianes-Rodríguez, A., & Olmeda-Gómez, C. (2019). Effects of journal choice on the visibility of scientific publications: a comparison between subscription-based and full open access models. *Scientometrics*, 121(3), 1737-1752. <https://doi.org/10.1007/s11192-019-03265-y>
- Ravinetto, R., & Singh, J. A. (2023). Responsible dissemination of health and medical research: some guidance points. *BMJ Evidence-Based Medicine*, 28(3), 144-147. <https://doi.org/10.1136/bmjebm-2022-111967>

- Rowley, J., Johnson, F., Sbaffi, L., Frass, W., & Devine, E. (2017). Academics' behaviors and attitudes towards open access publishing in scholarly journal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8(5), 1201-1211.
<https://doi.org/https://doi.org/10.1002/asi.23710>
- Severin, A., Egger, M., Eve, M. P., & Hurlimann, D. (2020). Discipline-specific open access publishing practices and barriers to change: an evidence-based review. *F1000Research*, 7, 1925. <https://doi.org/10.12688/f1000research.17328.2>
- Sheikh, A., Zahra, A. Q., & Richardson, J. (2022). Scholarly open access journals in medicine: a bibliometric study of DOAJ.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8(3), 102516. <https://doi.org/10.1016/j.acalib.2022.102516>
- Shmagun, H., Shim, J., Choi, K.-N., Shin, S. K., Kim, J., & Oppenheim, C. (2024). Korea's national approach to open science: present and possible future.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50(3), 766-785. <https://doi.org/10.1177/01655515221107336>
- Spedding, S. (2016). Open access publishing of health research: does open access publishing facilitate the translation of research into health policy and practice? *Publications*, 4(1), 2. <https://doi.org/10.3390/publications4010002>
- Suber, P. (2012). *Open Access*. Cambridge, Mass.: MIT Press.
- Toribio-Florez, D., Anneser, L., deOliveira-Lopes, F. N., Pallandt, M., Tunn, I., & Windel, H. (2020). Where do early career researchers stand on open science practices? a survey within the Max Planck Society. *Frontiers in Research Metrics and Analytics*, 5, 586992. <https://doi.org/10.3389/frma.2020.586992>
- Wakeling, S., Creaser, C., Pinfield, S., Fry, J., Spezi, V., Willett, P., & Paramita, M. (2019). Motivations, understandings, and experiences of open-access mega-journal authors: results of a large-scale survey.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70(7), 754-768. <https://doi.org/10.1002/asi.24154>
- Xia, J. (2010). A longitudinal study of scholars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open-access journal publishing.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1(3), 615-624. <https://doi.org/10.1002/asi.21283>
- Xu, J., He, C., Su, J., Zeng, Y., Wang, Z., Fang, F., & Tang, W. (2020). Chinese researchers' perceptions and use of open access journals: results of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Learned Publishing*, 33(3), 246-258. <https://doi.org/10.1002/leap.1291>
- Zečević, K., Houghton, C., Noone, C., Lee, H., Matvienko-Sikar, K., & Toomey, E. (2021). Exploring factors that influence the practice of open science by early career health researchers: a

mixed methods study. HRB Open Research, 3, 56.
<https://doi.org/10.12688/hrbopenres.13119.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un, Young Ho (2025). Status of Kore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aper publications and citations in 202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Available: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6010000&bid=0031&act=view&list_no=94238
-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KBSI) (2025). Leading research support program.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Available:
<https://www.kbsi.re.kr/board/view?menuId=MENU002050100000000&boardId=BOARD00036&schType=0&schText=%EC%84%A0%EB%8F%84%EC%97%B0%EA%B5%AC&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pageNum=1&rowCnt=10&no1=1&titleId=5q7SRS5ZYZ>
-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2023). 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2023 Revision).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Lee, Ki Jong & Kim, Ki Wan (2005). Status Analysis of National R&D Programs for Motivating Participation of Young Researchers (Research Report 2005-1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2025). Outstanding early-career researchers in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vailable: <https://www.nrf.re.kr/page/378?menuNo=378&searchSplitBizNo=42>
- Shim, Wonsik (2021). A study on the awareness and experience of open access publishing among Korean authors of an open access mega journ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4), 45-65. <https://doi.org/10.4275/KSLIS.2021.55.4.045>